

비인문학과 비인간화

현 시대의 지식과 고등 교육에 대한 탈식민지적 고찰

캐서린 월시

에콰도르 시몬 볼리바르 안디나 대학교 교수, 사회언어학 전공
catherine.walsh@uasb.edu.ec

- I. 머리말
- II. 분류 논리의 팽배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눈'
- III. 침해되고 거부된 인간성과 인문학
- IV. 비인간화, 이성적 휴머니즘, 그리고 고등 교육에 대해
- V. 학문적·지적·교육적 현대화
- VI. 도시, 사회, 그리고 경제의 지식
- VII. 인류와 인문학의 쇠퇴와 위기
- VIII. 인간성과 인문학의 회복, 그리고 탈식민적 균열에 대하여
- IX. 맺음말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일 「문명 대전환기의 인문학의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학 중앙 연구원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인문, 사회학 분야의 주요 한국 학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안병욱 원장님의 배려에 감사를 표합니다.

I. 머리말

오늘날의 인문학, 인문학이 직면한 위기와 인문학의 퇴보, 그리고 인문학의 필연적 재구상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인문학 자체를 포함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들, 특히 인간성 자체에 대한 통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양 사회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야만적 자본주의를 강요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없이 자행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 자본주의는 실존, 지식,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양상을 침해하고, 소유하고, 파괴하고,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폭력적인 비인간화 문제가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현 세계에서 어떻게 인문학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재구상해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문 분야로서, 또는 탐구와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 삶의 관점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점점 자본과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 잠식되고 지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의 입지, 그리고 그 적합성과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인문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문학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해 나가야 할까요? 즉 분과의 쇠락과 폐쇄에 맞서고, 비인간화와 인간성 말살의 문제, 자본주의적·가부장적·근대적·식민지적 질서를 고착시키고자 하는 세상과 사회에서 인간성을 구축하고 구성하는 탐구와 실천의 방식으로서의 인문학 말입니다. 종결부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제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제 철학실천, 저술, 강의, 연구, 사회운동의 차원과 지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또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던졌던 질문들과 앞으로 개진할 논제들이 밝히고자 하는 현실 속에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 연구 박사과정의 중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한국에서의, 좀 더 넓게는 동양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인문학의 사명에 관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던져야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성과 인문학의 사회적·문화적·인식론적·문명적 근간과 비전 뿐 아니라, 이 가치들의 정신적·존재론적·생성적 근간과 비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성과 인문학의 근간과 비전은 거의 전능에 가까운 서양의 사상·강요·일반화·보편화를 중단시키고 넘어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오리엔탈리즘』(1978)에서 밝혀낸 바, 동양(the Orient)이라는 '타자'의 구성을 통해 서양(the Occident)을 만들어 낸 유럽의 인문학과 제국주의 사이의 연대가 떠오릅니다.¹⁾ 서양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한국의 일제 식민주의의 유산 또한 떠오릅니다.²⁾

그렇지만 특히 이 논문의 컨텍스트에서는, 위의 논의들과 연결된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국의 지식 경제로의 전환과 이러한 위상 변화가 세계의 다른 지역, 특히 남반구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그간 진행되어 왔던 서구의 이익 실현과 사업을 반영합니다. 2000년도에 출간된 세계 은행의 한 문서에 따르면, 한국과 한국의 지식 기반 경제는 다른 나라들이 옛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개발 모델로 전환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³⁾ 한국의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기존의 북반구·서구와는 얼마나 달리, 또 이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 인문학과 인간성, 그리고 문명의 비전을 세우고 구상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항들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이자 관심사입니다. 그것들을 다음의 일곱 가지 사안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 1) Edward Said, *Orientalism*, NY: Pantheon, 1978.
 - 2) RYU Tongshik, "The Humanities and National Identity: The Case of Korea," *Cultural Identity and Modernization in Asian Countries, Proceedings of Kokugakuin University Centennial Symposium*, Institute for Japanese Culture and Classics, Kokugakuin University, 1983. <https://www2.kokugakuin.ac.jp/ijcc/wp/cimac/ryu.html>
 - 3) Vinod Thomas, Vice-President of the World Bank Institute, and Herwig Schlogl, Deputy Secretary-General of the OECD, "Forward," *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Carl Dahlman and Thomas Andersson (ed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II. 분류 논리의 팽배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눈’

1992년, 자메이카 태생 학자이자 철학자인 실비아 윈터(Sylvia Wynter)가 스텐포드 대학의 인문학과 동료들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음(No Humans Involved/NHI)」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는 로스 앤젤레스 경찰이 젊은 흑인 남성 로드니 킹(Rodney King)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동료들의 관심의 부재에 반발하고자 쓰여졌습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음(NHI)’은 로스앤젤레스 사법 기관과 경찰 조직 공무원들이 젊은 흑인 남성(들)이 개입된 범죄를 지칭하기 위해 그 당시 사용했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표현입니다. 윈터는 그녀의 편지에서 ‘NHI’라는 꼬리표는 결국 학계의 산물, 즉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분류 논리와 주관적 이해 또는 해석을 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⁴⁾ 윈터는 후자를 ‘내면의 눈’이라 부르지요.

윈터는 인문학과 사회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정해진 틀을 통해 사물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해석하도록 하여, ‘내면의 눈’의 분류 논리의 생성과 유지에 이바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윈터는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한계 또한 ‘내면의 눈’의 틀에 의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틀은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만을 인정하고 다른 진리들을 감추고 부인하며 인간과 존재와 지식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정합니다. 너무나 많은 학자들의 ‘내면의 눈’이 그들의 연구에서 절대 진리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인식론적으로 폐쇄 고착화되어, 정해진 공간, 위치, 입장을 벗어나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눈’의 존재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계와 학문적 지식과 서양 사회의 관계, 다시 말해, 현대 서양 사회와 문명의 근간이 되는 분류 논리, 즉 누가 어디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나아가 어떤 삶과 어떤 지식이 가치 있는지 분류하는 기준에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류 논리는

4) Sylvia Wynter, “No Humans Involved” An Open Letter to my Colleagues,” *Forum N.H.I. Knowledge for the 21st Century*, Vol. 1 No. 1 (Fall 1994), Knowledge on Trial.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이용되고, 인종·젠더·지역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과 인간성에 대한 서양의 지배적 이상을 지속화하는데 기여합니다.

세계 있어 이 분류 논리와 '내면의 눈'은 전 세계의, 특히 제 연구와 생활의 터전인 남아메리카의 인문학, 지식, 그리고 고등 교육의 현실과 문제를 탐구하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입니다.

저는 북미에서 남미로 이주한 이민자로서, 서양의 북반구·남반구의 차이와 경계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40여년 전에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남미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의 제 자신의 이주의 역사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의 '내면의 눈'과 언술의 장소가 파손되고 변화하는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 일반화된 관점과 틀에 따라 제가 미국에서 받았던 교육과 사회화는 재고되어야 했습니다. 탈학습·재학습을 배우는 과정, 그리고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것에 도전하는, 다각적이고 상호적인 이해·얹·사유·존재에 다가가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북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 사유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깨달은 점은, 현대 서양의 '내면의 눈'과 분류 논리의 이상과 폭력이 국가적·초국적 차원에서 명백히, 또는 암암리에, 그리고 은밀하게 전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처럼 확고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III. 침해되고 거부된 인간성과 인문학

인간성과 인문학은 과거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그리고 아브야알라(성숙한 땅 또는 생혈의 땅)라는 과거의 이름이 원주민들에 의해 복원된 현재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부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침해와 부정은 권력·지식·존재의 식민성과 그것의 분류 논리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526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민성은 식민주의와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민주의는 역사적으로 극복이 가능했던, 또는 가능한 특정한 지정학적, 사회역사적 사건들(예를 들어, 민족 국가의 독립 또는 탈식민화)과 조건들(즉, 식민화)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민성은 식민화와 시작은 함께 했지만, 극복되지 않고 지속되는 지배와 권력의 논리 또는 망을 뜻합니다. 식민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1980년대 후반 페루 사회학자 아니발 퀴자노(Anibal Quijano)에 의해 소개되어, 상호주체성, 노동, 권위, 지식에 대한 장악 기제로서 미주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인종,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젠더에 구심성을 둡니다.⁵⁾ 여기서 유럽 백인 남성들은 모든 다른 타자들을 분류하는 준거가 되었습니다. 그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백인 후손들은 스스로를 인간이라 규정하는 반면, 토착 민족들, 아프리카 출신 민족들, 특히 흑인과 토착 여성들을 비인간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식민성의 논리와 권력망은 자본주의, 서양 중심적 근대성, 서구의 이성주의, 그리고 서양 문명을 존재·분석·사유의 유일한 틀이자 가능성으로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성은 그 과정에서 비인간화를 수반했습니다. 어떤, 그리고 누구의 삶과 지식, 삶의 관점, 관행이 중요한가에 대한 결정이 비인간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에 대한 장악은 중요한 과업이 됩니다. 토착 민족 사회와 흑인 사회에서 삶 자체의 완전체로 여겨지던 자연은 인간의 사용·지배·착취의 대상인 자원으로 변하게 됩니다.⁶⁾

식민성의 경험과 폭력,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부인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아브야알라에서 토착 민족 사회와 흑인 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규모의 강제 이주, 추방, 불법 점유, 약탈, 그리고 탈영역화의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자연 자원에 대해 대규모로 행해지는 약탈, 탈취, 그리고 상업화, 즉 채굴, 석유 및 수력 전기 생산, 대규모의 관광업은 무장 분쟁, 준 군사화, 마약 밀매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콜롬비아를 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콜롬비아는 720만명의 국민이 강제 이주를 경험하여 전 세계에서 국내 강제 이주의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참고로 시리아에서는 630만명이 강제 이주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720만명 중 83퍼센트가 여성과 아이들이었고, 대다수가 토착민 또는 흑인이었습니다.⁷⁾ 더욱이,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5) See, among other texts, Anibal Quijano, Quijano, Anibal,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Latin America," *Nepantla: Views From South*. 1 (3), 2000, p. 533-580.

6) See Walter D. Mignolo and Catherine Walsh, *On Decoloniality. Concepts, Analytics, Praxi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8.

(FARC)이 2016년 맺은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0명 이상의 원주민·흑인·농부 출신 지도자들이 암살되었습니다. 이는 민족말살, 집단학살, 여성학살, 그리고 생명의 파괴, 몰살, 제거의 단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폭력·죽음·전쟁은 사바티스타 부사령관 갈레아노(Galeano)가 파괴, 인구 감소, 재건, 재배치라 칭하는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고 투쟁을 억압하려는 자본주의적·추출주의적·가부장적인 식민 권력의 전략이자 결과입니다.⁸⁾ 카리브해의 철학자 넬슨 말도나도-토레스(Nelson Maldonado-Torres)는 현재의 시대가 그 자신이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긴 역사적 시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말도나도-토레스는 서양이 식민화, 인종, 그리고 성적 차이의 특정 양상들을 통해 우리가 전쟁의 죽음 윤리를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게끔 오랜 세월동안 애써 왔다고 말합니다. 죽음윤리, 패러다임, 그리고 과업으로서의 전쟁은 서양의 타 세계에 대한 지배와 장악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추적 도덕률로, 문명화를 가장한 제국주의의 기치 하에 인간성과 인간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여러 조직과 기관들의 야망의 산물입니다.⁹⁾ 오늘날, 이러한 전쟁은 특히 고등 교육 기관 내부를 포함한 여러 사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멕시코는 이런 현상의 좋은 사례입니다. '마약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 (일부 보도에 따르면, 1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최근 멕시코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실종자가 3만 7천명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종자들의 사체가

7) See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17 and Catherine Walsh, "Exile, Dispossession, Deterritorialization: Reading 'Migration and Mobility' in Latin America from the Prisms of Global Capitalism, Coloniality and (Re)Existence,"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 Selected Expert Comments, Volume I*. Berlin: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 2017.

8) In EZLN, *Pensamiento Crítico Frente a la Hidra Capitalista I* (Critical Thought Up Against the Capitalist Hydra). Mexico: 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2015, p. 318.

9) Nelson Maldonado-Torres, *Against War. Views from the Underside of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공립 대학들의 실험실을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발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체들의 출처에 대해 한 치 의심도 없었던 의대생들은 의료용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시체들을 인체 표본 연구를 위해 사용해 왔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냉장 트럭들이 멕시코의 주택지들을 순회하며 사람들에게 트럭 안에 쌓여 있는 수백 구의 시체들 중에 혹 실종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¹⁰⁾ 이것이 인륜과 인간성이 완전히 부정된 전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IV. 비인간화, 이성적 휴머니즘, 그리고 고등 교육에 대해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대학들은 점점 이와 같은 전쟁·죽음 체계의 공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수성과 혁신이라는 기치 하에 지식과 교육을 상품화하고 제도화하여 이러한 체계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담함으로써, 이 체계의 성공과 번영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들은 연구기금을 받고 초국가적 질서가 요구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합니다. 이 연구 과제들에는 인륜과 인간성에 어긋나는 일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한 공립대학은 최근에 교수진과 학생들을 생물자원 발굴에 투입하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한 공립 대학은 수압 파쇄법으로 자원개발을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압 파쇄법은 고압의 액체를 이용하여 가스와 석유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결국 인근 지역의 상수도를 파괴하고, 대학 주변 두 개의 작은 도시와 마푸체 원주민 지역에 기형, 자연 유산, 사산,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수준의 환경 오염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침묵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들이 그들의 시선을 내부에 두어야만 생존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현실과 거리를 두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10) René Olvera Salinas, Talk given at the 2018 International Congress of Literature and Cultural Studies *Cuerpos, despojos, territorios: Vida Amenazada* (Quito: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전쟁과 싸우는 사람들의 위급함과 반인륜에 대항하는 인륜의 급박함을 외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철학자 마리아 유제니아 보르사니(Maria Eugenia Borsani)가 말한 바, 사람과 세계가 배제된, 비인간화된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대두입니다.¹¹⁾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남반구, 그리고 북반구의 개발도상국들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들은 현재 고등교육기관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인간화된 인문·사회 과학들의 실태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에 칠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의 학생 운동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시장 경제 논리나 유럽·미국 중심의 이성적 인본주의와 차별화된, 즉 비인간적인 근대·식민주의 체계에서 사람과 지식을 서열화하는 보편화된 교육이 아닌, 그동안 계속 침묵을 강요당해 온 “타자”와 연관된 교육을 요구하였습니다.¹²⁾ 이 칠레 학생 운동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예리한 분석, 그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불만, 그리고 탈식민적 교육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여러 사건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남아프리카는 또 다른 예입니다. 2015년에 시작했던 학생 운동인 「로즈 동상 철거 캠페인」과 「등록금 감면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공립 대학 교육과정의 탈식민화와 반인문학적이고 비인간적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청산을 요구했고, 이외는 철저히 차별화된 인간적, 사회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인문학이 지닌 문제 중 하나는 이성적 인본주의입니다. 이성적 인본주의는 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자본주의적 권력의 핵심 요소이자, 이 체계가 야만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명화하고, 길들이는 행위, 미개발 국가들을 개발하는 행위, 그리고 존재와 지식을 서열화하는 인간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 인간성의 모형을 강제하는 서양 유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문학과 그간 인문학이 행해온 비인간화와 반인륜적 행위 또한 이러한 이성적 인본주의의 전파에 일조해

11) In Catherine Walsh, “(Des)Humanidad(es),” *Alter/nativas. Revista de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No. 3, 2014, p. 5.

12) See Camilo Barriga, “(Des)humanizar. Una lectura decolonial acerca del movimiento estudiantil de 2011 en Chile,” in *Colonialidad/Decolonialidad del poder/saber. Miradas desde el Sur*, J. Solano y otros eds. Valdivia, Chile: Ediciones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946년에 하이데거가 쓴 「인본주의에 대한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역사의 불연속성과 그동안 일어났던 새로운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인본주의가 반인륜적 과제와 관행을 지속시키며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아메리카의 진보적 정부들이 사명으로 수행해 온 사회적 인본주의야말로 인본주의의 반인륜적 행보에 대한 명백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상원 의장은 2013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생산과 소비 촉진, 기회의 균등 제공”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인본주의를 더 확산해야 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채취 산업의 육성을 토착 민족의 권리, 더 나아가 인간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아르헨티나의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¹³⁾ 하지만 학계는,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함구해 왔습니다.

보사니는 아르헨티나 대학들이 비인문학 양성에 어떻게 공조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해 왔다. 세계의 인문학은 탈수 증세에 시달려 왔다. 따라서 인문학에 물을 주고, 부활시키고,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인문학이 이미 죽은게 아니라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사니는 주장합니다.

이곳 파타고니아에서의 인문학은 다른 곳의 인문학보다도 더 우려가 깊다. 여기서 우리 민족들이 사는 형태는 지난 2년간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과일 재배는 수입과쇄탐으로 대체되었다…… 반테러법…… 시위의 범죄화, 현 문제 상황에 대한 시위에 쏟아지는 총성……

이 모든 것이 인문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왜 인문학과 관련이 없겠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의 강의실에서는 논의가 부재하고, 내가 속한 학과에서도 이는 문제로 간주되지 않는 듯하다. 현재의 급박한 상태는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논의에서 제외되어 있다. 비인간화된 인문학…… 지역, 국가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새로운 양식의 식민성.¹⁴⁾

에콰도르 또한 유사한 사례입니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Rafael

13) Aranda (2012) cited in Catherine Walsh “(Des)Humanidad(es),” *Alter/nativas. Revista de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3, 2014.

14) In Catherine Walsh, “(Des)Humanidad(es),” *Alter/nativas. Revista de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3, 2014, 7.

Correa) 대통령은 임기 10년 동안, 그가 추진해 온 “시민 혁명”을 “밭을 땅에 굳건히 디딘, 인본주의적 과업”이라 칭했습니다. 그가 주창하는 인본주의에는 “자본보다 인간이 우선”임이 전제된 듯합니다. 그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어디까지나 단순히 자유임금과 경쟁력을 우선하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새롭고 더 나은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¹⁵⁾ 코레아의 “새롭고 더 나은 것”에는 학문적·지적·교육적 현대화를 이룩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V. 학문적·지적·교육적 현대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의 임기 10년 동안, 신자원 추출주의는 에콰도르 현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반테러리스트 법들이 제정되었고 시위는 범죄화되었으며, 원주민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대규모 강제 이주가 강행되는 한편, 만 개의 지역 사회 기반 학교들이 철거되고, 원주민 언어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자원추출 산업 단지에 인접해 있는 아마존 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신기술을 장착한 대형 학교들이 세워졌으나, 오늘날까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규격화되고, 주 교습은 스페인어만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2 외국어로는 영어와 중국어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에콰도르 자원 추출 산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콰도르 국가 부채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특히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과학 지식’과 제도를 이식하기 위한 지식과 고등 교육과 관련된 법들, 정책들이 제정되고 국제 동맹도 체결되었습니다. 코레아 대통령은 인문·사회과학과 거리를 두고, 기술과 ‘진짜’ 과학들을 국가의 현대화 사업에 필수적인 근간으로

15) Nelsy Lizarado, “Rafael Correa: “Este modelo es humanista pero con los pies bien puestos sobre la tierra”, *Pressenza International Press*, January 23, 2014. <http://www.pressenza.com/es/2014/01/rafael-correa-este-modelo-es-humanista-pero-con-los-pies-bien-puestos-sobre-la-tierra/>(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정책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해외 우수 대학에서 석박사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된 대규모 장학금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우수 대학은, 런던과 상하이 국제 대학 순위 리스트에 포함된 학교들을 뜻하는데, 여기에 라틴 아메리카 대학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이 국비 장학 제도는, 빈곤 문제 해결과 국가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에콰도르 국가 발전 계획과 관련된 분야들을 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전체 장학금의 10%만이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 할당되었는데, 그마저도 2014년에는 이 분야들이 국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5,000명의 외국 교수와 연구자들, 특히 유럽과 미국 출신 교수와 연구자들의 유치를 목표로, 2011년에 시작된 「프로메테오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의 저변에는 국비 장학금을 받고 유학한 사람들이 귀국할 때까지, 이 외국 교수들이 낮은 수준의 자국 교수들과 에콰도르에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부재한 현실을 보강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이 서양 교수들이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그리고 그 자체에서 생산되는 인문·사회과학보다 더 우수한 '보편적 지식'을 전파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일련의 새로운 정책과 법의 시행을 통해 에콰도르 대학들은 국가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직되었습니다. 대학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순위가 매겨졌으며, 교육과정과 수업도 점차적으로 감시되고 조율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든 비평과 비판은 억압되었습니다. 에콰도르 학자 아르투로 비야비센시오(Arturo Villavicencio)는 이를 에콰도르 대학들의 경험과 가치, 그리고 그간 논의, 토론, 분석, 비평의 장을 제공해 온 대학들의 사명과 유산을 부정한 코레아 정권하에 자행된 학계의 자본주의화·식민주의화가 야기한 결과로 봅니다. 더욱이 비야비센시오는 “이 모든 것은 시장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치적, 국가적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실용적인 지식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대학을 개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¹⁶⁾

세 번째 정책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사업을 대표하고 그에 기여할 네 개의 상징적인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술 이전과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이자, 최초의 '지식 기반 도시'의 일부로 계획되고 설립된 야차이 기술 대학입니다. 야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요점과 연결하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VI. 도시, 사회, 그리고 경제의 지식

에콰도르 정부에 의하면, 야차이는 기술 혁신과 집중적인 지식 경영을 위해 계획된 도시로, 우수한 발상, 재능있는 인재, 그리고 최신 시설을 밀집시켜 “풍요속의 삶(buen vivir)”¹⁷⁾에 필수적인 최상의 과학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지식 중심지가 될 것을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야차이는 에콰도르 정부가 아프리카계와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몰수한 4,270 헥타르의 땅에 세워진 도시로, 과학과 첨단 연구, 그리고 실용적인 고등교육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반복된 약속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¹⁸⁾ 야차이는 라파엘 코레아 정부가 국가의 생산력을 증강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다섯 개의 영역, 즉 생명 과학 (기술·바이오 의학·생물 다양성·유전 자원), 정보 통신 기술, 나노 과학, 에너지, 그리고 석유 화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인문·사회 과학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고등 교육 사무국(SENESCYT)의 국장은 2014년 취임하면서 소름 끼치는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16) Arturo Villavicencio, “Hacia dónde va el proyecto universitario de la Revolución Ciudadana?”, on *El correísmo al desnudo*, various authors. Quito: Montecristi vive, 2013, p. 217.

17) “풍요속의 삶”을 의미하는 “buen vivir”는 에콰도르 2008년 헌법의 중심축이다. 토착 철학과 생명관에 뿌리를 둔 이 개념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이 두 논리가 야기하는 삭막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와 거리를 두는 관점과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 그러나 “buen vivir”가 정부 정책의 담론으로 사용되면서 이 중요성은 사라진다. 오늘날 정부의 정책에서는 “buen vivir”는 “개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8) Villavicencio, 2013, p. 220.

1972년 6월 26일 수출용 첫 기름통이 채워지면서 이 나라에 석유 붐이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2014년 3월 31일 오늘 야차이의 첫 세대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새로운 지식의 붐이 시작될 것입니다.¹⁹⁾

야차이 개발은 5억 달러 이상의 단기 투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국과 한국 정부에서 투자한 것이며, 당시 에콰도르의 외교장관에 의하면, 한국은 지식 산업 도시인 송도를 표본으로 삼아 야차이를 설계하고 설립한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을 따라 에콰도르에 지식 경제를 세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²⁰⁾

한국은 지속적으로 야차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야차이와 대한 메디컬 홀딩스(Korean Medical Holdings)는 야차이의 부지에 대규모 제약 시설을 세우기로 합의했습니다.²¹⁾ 2016년에는 한국에서 야차이 혁신 센터(YIC) 건설을 위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야차이 혁신 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중재로 기술 발전과 경쟁적 성장을 위해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묘사되었습니다.²²⁾ 몇 달 전 2018년 7월에는 한국 사절단이 혁신 센터 사업을 검토하고 진전시킬 목적으로 에콰도르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개발 단계 및 개교 이래 야차이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야차이에 지원된 국가 예산은 다른 공립 대학들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을 훨씬 웃돌았고, 결국 다른 공립 대학들에게 지원될 예산을 빼앗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국제적 재정 지원, 외국 교수 임용, 에콰도르의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과의 의도된 괴리로 인해, 야차이는 코레아의 '시민 혁명'이 낳은 방탕한 자녀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타 대학들을 파괴하고 인문학과 사회 과학의 무용성을 예증하는 기구로 인식되었습니다.

정부는 야차이가 에콰도르의 고등 교육 혁명을 이끌 것이라 했습니다. 즉, 야차이 대학이 고등 교육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고, 재정비함으로써,

19) René Ramírez cited in <http://www.yachay.gob.ec/inicia-el-boom-del-conocimiento-en-ecuador/>

20) <https://www.cancilleria.gob.ec/educacion-y-comercio-temas-claves-en-la-agenda-bilateral-de-ecuador-y-corea/>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21) See https://issuu.com/yachayep/docs/28._memorando_de_entendimiento_entr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22) See <http://www.koicaecuador.com/9-proyectos/29-establecimiento-del-centro-de-innovacion-en-la-ciudad-del-conocimiento-yachay-en-urcuqui-imbabura-2016-2020>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세계 지식 기반 사회의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초반에 언급되었던, 한국에 대한 세계 은행 문서의 논의에 의하면, 이는 “지식과 정보를 경쟁력의 핵심”으로 만들고 “시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게끔 하여 자원의 지속적인 재배치를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²³⁾ 즉, 한국에서처럼 에콰도르에서의 지식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닌, 시장의 그리고 시장의 필요를 위한 상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가 보여주듯, 야차이는 무용지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차이의 건물들은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부재하거나 고장이 나 있으며, 야차이 사업을 위해 차출되었던 생산성 높았던 땅의 절반이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연구실들도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교수진들은 강의나 연구도 거의 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없어 유명촌같이 보이는 교정에 출근조차 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는 연봉을 받는다고 비판받아 왔습니다.

야차이는 학계의 현대화와 지식 사회 구축이라는 목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비인문학의 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학계 현대화에 수반되는 법·규제·관행들로 인해 개인주의와 개별화가 만연하게 되었고, 과학기술과 자원추출주의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공동체와 사회의 필요보다 우선시되었으며, 지배적 분과와 주변부 분과 사이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경제·규율·통제의 정책과 불신 속에서 자행되었습니다. 대학 교수이자 고등교육평가협의회의 전 국장이었던 비야비센시오에 의하면, 우리는 과학(즉, 서양의 보편적이고 보편화된 과학)과 기술(즉,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노하우)을 지식 사회의 근간으로 찬양하는 터무니 없는 학제, 그리고 제한적이고 위계적인 학계 공간들로 이루어진 대학의 설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²⁴⁾ 여기에 내재된 근본적인 믿음은 서양만이 과학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의 기여는 과학과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인 적용과 노하우의 측면입니다. 여기서도 사회학·문화연구·인문학의 쇠락과 그 분과들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분류 논리, 그리고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서양을 우위에 두는 분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23) World Bank, “Executive Summary,” op.cit

24) Villavicencio, 2013, p. 219.

그러나 에콰도르의 지식 사회 프로젝트에서는 비인간화의 정도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에콰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건으로 여겨지는 2008년 개헌을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토착 원주민의 지식과, 역사적으로 경시되고 외면받았던 이 지식들의 활용을 집단적 권리로 인가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적·기술적·인식론적 다양성의 구성 요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지식들을 국가 산업, 그리고 지식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수단 및 자원으로 보고 접근했던 방식에 있습니다. 2015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코레아는 지식 사회는 에콰도르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에콰도르를 지식 수출국으로 도약시킬 혁명적인 경제구조라고 말했습니다.²⁵⁾

결국, 2016년 “지식, 창조성, 혁신의 사회 경제 규칙,” 그리고 2017년 “지식 사회 경제 계획” 등의 법·규정·실행 계획을 통해, 토착 원주민의 지식은 개발을 위한 국가적 공공자원, 무한한 국가의 무형 문화 유산, 그리고 정부가 취하여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토착 원주민과 흑인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집단적 존재성, 집단적 기억, 집단적 우주론과 철학, 그리고 이들이 영토·땅·생명·지식·존재·삶으로서의 자연과 이루었던 집단적 공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들은 비인간화되었고, 인간과 삶이 부재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식 사회 산업의 목표입니까? 경제 체계로서의 사회, 상품으로서의 지식의 양산, 인간성과 인문학의 부정이 말입니다.

VII. 인류와 인문학의 쇠퇴와 위기

2018년 3월, 「고등 교육의 연대기」에 “인문학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저자인 스코틀랜드의 인문학자 저스틴 스토퍼(Justin Stover)는 “인문학은 단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이미 거의 죽었다”라고 적으며 이 글을 시작합니다.²⁶⁾ 문제는 “인문학이

25) Rafael Correa, Enlace Ciudadano No. 407, January 17, 2015.

경제기관이 되어버린 현대 대학들을 위장하기 위해, 막연하게 정의된 기술 분과들의 모음이 되어 버린 것”에 있다고 스토버는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던 기술과 공학 분야에 중심을 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인문학이 기여하도록 강요된 경제·정치·사회 구조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것”이라고 스토버는 말합니다. 그는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곧 대학 자체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덧붙이자면, 대학의 개념·역할·인간성에 대한 논의라고 주장합니다.

21세기의 자본주의 논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고등교육의 역할은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제가 여태껏 주장했듯 남반구에서도 점차적으로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종 학리적·인지적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고등 교육과 지식의 마케팅은 대학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의 사회적 관계·사명·과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대학을 향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성과 혁신’은 양적 생산성이 비판적 사유를 대체해 버린 고등교육의 대학 모형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입니다. 온라인 수업들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 교실에서의 토론과 인간다운 접촉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색인된 “과학” 저널에의 출판(특히 영어 출판)은 지금 대학 기관의 순위 선정과 교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논문의 색인과 갯수이지, 내용과 지적인 공헌 또는 독자층이 아닙니다. 교습 또한 수량화되고, 쉽게 해고하고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 교수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그리고 인간성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적 대중화와 인식론적 대중화의 문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고등 교육의 대중화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대륙마다 그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실용주의 철학, 교육학, 관행, 그리고 세계 자본의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필수적인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포함의

26) Justin Stover, “There is no Case for the Humaniti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March 18, 2018. <http://www.chronicle.com/article/There-Is-No-Case-for-the-242724>

시장 운용을 도입합니다. 여기서의 메세지는, 인문학같은 비실용적인 분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용한 교육과 지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사회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분과들에 집중하라는 도쿄 시 지침에 따라, 24개 이상의 일본 대학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교과과정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²⁷⁾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나마 대학에서는 2018년 중순 동안 기술 논리와 실용주의를 앞세운 일부 학장들이 그동안 그 대학에서 필수 과정이었던 인문학 교과목들을 정면 공격했습니다. 이 필수 인문 교과목들에는 파나마의 역사와 지리, 파나마와 미국 관계사, 환경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학장들은 실용성을 중심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학생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 사항을 이해하고, 따르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오늘날의 경제 질서에서는 사실상 방해 요소로 간주되는 것입니다.²⁸⁾

브라질의 미셀 테머의 쿠데타 정권 하에서는, 인문학 필수 과목이었던 아프리카와 아프로브라질(AfroBrazil)의 역사가 대학들과 학교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여덟 개 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 까지 성, 정치학, 비기독교 종교와 관련된 주제나 자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제는 “그동안 인문학이 변형시키고 왜곡했던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 (즉,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백인 남성주의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이르 볼소나로(Jair Bolsonaro) 대통령을 필두로 한 브라질의 신파시즘, 비인간화, 비인문학으로의 현 움직임은 교육 기관의 방향을 재조명하고 재정지출 필요성을 보여주는 징후일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현실입니다. 급증하는 살인, 특히 경찰과 정부 관련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흑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백인 중심의 이성애적 규범성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살해,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흑인, 원주민, 부랑자 여성들을 브라질에서 몰아내겠다는 최근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마지막 며칠 동안 공립 대학들에 출몰했던 협박들, 그리고 현 대통령의 같은 맥락의 성명들로

27) <http://time.com/4035819/japan-university-liberal-arts-humanities-social-sciences-cuts/>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28) Olmedo Beluche, “Panamá: Un ataque frontal a las Humanidades,” *Kaosenlared*, May 31, 2018. <http://kaosenlared.net/panama-un-ataque-frontal-a-las-humanidades/>

미루어 볼 때, 비인간화와 비인문학의 메세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자 합니다. 점점 더 폭력적이 되어가는 비인간화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현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문학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재구상해야 할까요? 서양 사회가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야만적 자본주의를 강요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서슴없이 자행하고, 이 야만적 자본주의가 실존, 지식,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양상을 침해하고, 소유하고, 파괴하고, 상품화하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학문 분야로서, 또 탐구와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류, 문명, 삶의 관점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은 저의 마지막 논제로 이어집니다.

VIII. 인간성과 인문학의 회복, 그리고 탈식민적 균열에 대하여

50년전, 카리브해 지역 흑인 사상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비인간화와 정치적·존재론적·실존적·인식론적 속성을 지닌 권력의 지속적 모델로서의 식민지화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제가 이 논문의 초반에 언급했던 식민성과 일맥 상통합니다. 파농에게 탈식민주의는 필연적으로 재인간화를 수반합니다. 재학습을 위해 탈학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부인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지요. 물론, 파농의 주장은 인종 차별과 인종 차별주의적 세계를 몸소 겪어본 현실에서, 즉 인종차별과 비인간화의 경험에서 나온 사유와 행동으로서 그의 글과 삶에서 현현되고 있는 것들로부터 비롯됩니다.

파농의 사유의 현재성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 생각에 파농 스스로에게 있어 가장 중요했던 임무는 존재를 재발견하고, 부인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는 인류와 오늘날의 인문학을 재고하는데 명확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과 고등 교육에 현존하는 반인문학과 비인간화 현상, 이 문제들의 상황적 맥락, 구체적인 발현,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 있는 근대적·식민지적 권력과 이 문제들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명명하고, 사유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학계의 비인문학과 학계와 지식 경제가 공모하여 만들어낸 자본주의적·가부장적·근대적·식민지적인 전체주의적 보편성에 대항하여 인류와 삶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투쟁, 관행, 공간과 장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정반대의 지식, 사고, 존재 및 관계가 발생하는 체제 내부의 균열의 지점을 인식하고 식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커져가는 폭력과 절망의 시기에 균열을 열고 재인문학의 씨앗을 심기 위해 우리의 교실, 연구, 글 및 대학 밖의 일에서도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실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러한 탈식민적 균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야말로 제가 제 자신을 바쳐 몰두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즉, 고등 교육의 영역 안팎에서 희망과 빛이 되고, 다름/정반대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균열을 만들고자 하는 제 실천 철학의 목적과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²⁹⁾

IX. 맺음말

저는 라틴 아메리카,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일련의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이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들과 그것들이 수반하는 질문들은 현재의 인문학에 대한 쟁점과 구상의 핵심에 있어야 합니다.

파농과 철학자 루이스 고든(Lewis Gordon)에 의하면 인간 연구에는 역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역설이란, 인간은 자신이 하는 연구에 의해 구성되지만 항상 그것을 뛰어 넘는다는 것입니다.³⁰⁾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학제와 특정 학문 분과에 맹목적으로 몰아매는 것은 비인간화, 가부장제 및 식민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영속화하려는 세계 앞에서 인류에 대한 탐구, 구성 및 건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인문학의 기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9) 균열과 탈식민주의적 실천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2018년 『On Decoloniality』의 제1장을 참고하기 바람.

30) Lewis Gordon, *Disciplinary Decadence. Living Thought in Trying Times*. Boulder, Colorado: Paradigm, 2006, p. 126.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논문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학문적인 의미에서의 인문학 자체를 옹호하거나, 현대적 의미에서 새로운 생산 체계와 지식 경제에 초점을 둔 과학의 분류 논리나 뉴턴식의 과학의 재정전화에 맞서 인문학의 인식론적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진보적·신자유주의적·초보수주의적·신파시스트적 좌파 또는 우파로 간주되는 국가들에서 '내면의 눈'이 형성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윈터는 이러한 현재의 세계 및 국가 질서에 대해 우리가 보고,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 즉 우리 '진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눈들에 대해 명백히 경고합니다.³¹⁾ 제가 이미 주장했듯이, 이 '내면의 눈'은 다른 진리를 숨기고, 부정하고 위반하며, 존재와 지식, 그리고 '인간'과 '인류'에 대한 담론 자체에 대한 가치 기준을 수립하고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날의 비인문학의 고통과 현실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보사니의 말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은 둘 다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나는 비인간화된 사회학은 물론이거니와, 비인간화된 인문학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지식을 구축하는 논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음은 확실할 수 있다. 인간, 인간성, 그리고 사회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더 깊이 관여해야만 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책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나는 지식 공장이 더 이상 '고상한' 연구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 그리고 여러 세상들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학술 활동을 통해 우리는 개념화하고 이론화하지만, 우리가 이루어 낸 개념화와 이론화가 우리로 하여금 시급하고 위압적인 문제들을 외면하게 만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정확하고 학문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 사건에 대한 관심이 시급한 시기다. 이는 오늘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지적 몽유병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에드가르도 랜더 (Edgardo Lander)가 수차례 언급했던 바다.³²⁾

신희정 번역(미국 옥튼 커뮤니티 컬리지 영문과 전임강사)

31) Wynter, 1994, p. 61.

32) In Walsh, (Des)Humanidades, 2014, p. 15.

참 고 문 헌

- Beluche, Olmedo. "Panamá: Un ataque frontal a las Humanidades," *Kaosenslared*, May 31, 2018. <http://kaosenslared.net/panama-un-ataque-frontal-a-las-humanidades/>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 Correa, Rafael. *Enlace Ciudadano*. No. 407, January 17, 2015.
- Dahlman, Carl and Thomas Andersson (eds.), *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 EZLN, *Pensamiento Crítico Frente a la Hidra Capitalista I*. Mexico: 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2015.
- Gordon, Lewis. *Disciplinary Decadence. Living Thought in Trying Times*. Boulder, Colorado: Paradigm, 2006.
-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er, *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17.
- Lizarado, Nelsy. "Rafael Correa: "Este modelo es humanista pero con los pies bien puestos sobre la tierra." *Pressenza International Press*, January 23, 2014.
- <http://www.pressenza.com/es/2014/01/rafael-correa-este-modelo-es-humanista-pero-con-los-pies-bien-puestos-sobre-la-tierra/>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 Maldonado-Torres, Nelson. *Against War.: Views from the Underside of Modern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 Mignolo, Walter and Catherine Walsh, *On Decoloniality. Concepts, Analytics, Praxi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8.
- Quijano, Anibal. "Coloniality of Power, Eurocentrism, and Latin America," *Nepantla: Views From South*, 1 (3), 2000, pp. 533-580
- Ryu, Tongshik. "The Humanities and National Identity: The Case of Korea," *Cultural Identity and Modernization in Asian Countries, Proceedings of Kokugakuin University Centennial Symposium*, Institute for Japanese Culture and Classics, Kokugakuin University, 1983. <https://www2.kokugakuin.ac.jp/ijcc/wp/ci-mac/ryu.html>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 Said, Edward. *Orientalism*. NY: Pantheon, 1978.

- Stover, Justin. "There is no Case for the Humanities."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March 18, 2018. <http://www.chronicle.com/article/There-Is-No-Case-for-the/242724> (Last consulted December 14, 2018)
- Thomas, Vinod and Herwig Schlogl. "Forward." *Korea and the Knowledge-based Economy. Making the Transition*, Carl Dahlman and Thomas Andersson (eds.),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 Villavicencio, Arturo. "Hacia dónde va el proyecto universitario de la Revolución Ciudadana?" *El correísmo al desnudo*, various authors. Quito: Montecristi vive, 2013.
- Walsh, Catherine. "(Des)Humanidad(es)." *Alter/nativas. Revista de Estudios Culturales Latinoamericanos*, 3, 2014.
- Walsh, Catherine. "Exile, Dispossession, Deterritorialization: Reading 'Migration and Mobility' in Latin America from the Prisms of Global Capitalism, Coloniality and (Re)Existence."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 Selected Expert Comments, Volume I*. Berlin: Dialogue of Civilizations Research Institute, 2017.
- Wynter, Sylvia. "No Humans Involved. A Letter to my Colleagues." *Forum NHI. Knowledge for the 21st Century*, 1:1, 1994, pp. 42-71.

